휴고, 재식밀도, 관수가 감초의 생육 및 수량에 미치는 영향

한상선[1], 김연복[1], 이상용[1], 장광진[2], 이한범[3], 박철호[1]
[1]강원대학교, [2]한국농업전문학교, [3]경기도농업기술원

Effects of Ridge Height, Planting density and Irrigation on Growth and Yield of Licorice Root

Han Sang Sun[1], Yeon Bok Kim[1], Sang Ryong Lee[1], Kwang Jin Chang[2],
Han Bum Lee[3], Cheol Ho Park[1]
[1]Kangwon National University, [2]Korea National Agriculture College
[3]Kyeonggi Provincial Agriculture Technology

감초의 국내생산 기반 조성 및 수입대체 효과를 위한 감초 재배기술 확립 연구의 일환으로 휴고과 차광을 달리한 조건에서 감초의 생장 및 수량을 조사하였다.

종근을 대묘와 소묘로 구분하여 이식재배한 결과 각 처리에서 대묘가 소묘보다 생육과 수량이 양호하였다. 대묘의 경우 근경은 40cm 휴고와 밀식구(40×30cm)에서 양호하였으며 소묘의 경우 근장은 40cm 휴고에서 양호한 반면 근경은 20cm 휴고에서 양호하였다. 대묘에서 휴고가 낮은 경우 초장과 근장이 소식구(60x30cm)에서 다소 양호한 반면 높은 휴고에서는 분지수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형질이 밀식구에서 양호하였다. 분지수는 대묘에서는 휴고가 높았을 때 소식구에서, 소묘에서는 휴고가 낮았을 때 밀식구에서 더 많았다. 소묘에서 휴고가 낮은 경우에는 초장, 경경, 근장, 근경이 소식구보다 밀식구에서 다소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체중, 건물중, 생근중, 건근중은 재식밀도에 따라서는 큰 차이가 없었으나 휴고에 따라서는 차이를 보여 대묘, 소묘 공히 40cm 휴고에서 수량이 높았다.

감초 종자를 화분에 파종하여 1일 1회, 1일 2회, 2일 1회 처리구로 구분하여 관수실험한 결과 1일 2회 관수 처리구가 엽수와 초장 모두 가장 양호하였으며 2일 1회 처리구에서 생육과 수량이 가장 저조하였다. 전초의 건물중과 건근중도 1일 2회 관수시에 각각 1.4g과 0.8g으로 가장 높았다.